밝은 미래 꿈꾸게 할 '희망센터' 첫 삽

(사)다나, '희망센터' 기공식

컴퓨터·한국어교실 등 2층 규모
다나 청년봉사단도 공사 힘 보태
스리랑카 정부 측도 고마움 표시
마힌다 스님 "질 높은 교육할 것"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① 다나 청년불사들도 '희망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다. ② '희망센터' 부지 ③ 다르마라자 사원 옆 공간에서 '희망센터' 기공식이 개최됐다.

스리랑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다나의 '희망센터'가 첫 삽을 떴다.

(사)다나(대표 탄경 스님)는 1월 7일 스리랑카 노나가마 다르마라자 사원 옆 공터에서 '희망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탄경 스님과 사제의 연을 맺은 마힌다 스님(스리랑카), 다르마라자 사원 주지 해마 스님, 프리안드 정부 토지 관리 책임자, 다나 청년봉사단,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해 희망센터 건립을 축하했다.

희망센터는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스리랑카 아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발원한 탄경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탄경 스님이 스리랑카에 교육관 건립을 서원했고, 사제인 마힌다 스님이 현지에서 희망센터 부지 선정을 도왔다. 마힌다 스님과 해마 스님이 다르마라자 사원 바로 옆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정부 측과 적극 협의, 정부 측이 사원에 토지 제공을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날 기공식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부처님 경전과 곡물 등을 땅에 묻고, 우유를 끓이는 스리랑카 전통의식으로 이어졌다. 의식에는 액운을 막고 평화가 깃들길 기원하는 바람이 담겼다.

의식이 끝난 이후 탄경 스님은 "100년 전에 내가 마치 여기 살았던 것 같다. 그런 인연이 이어져 다시 스리랑카 아이들을 위해 이곳에 교육관을 짓고자 한다"며 "아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힌다 스님은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준 탄경 스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며 "부처님이 자비행을 강조했듯 불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몸소 보여줘 고맙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교적 소양을 갖추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프리안드 책임자도 "지역 내 꼭 필요한 교육관이 지어진다고 해 반갑다. 사원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결속력이 더 끈끈해지길 기대한다"며 "교육관 건립이 스리랑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나 청년봉사단도 희망센터 건립에 힘을 보탰다. 직접 시멘트를 반죽하고 옮기며 토대를 닦았다. 서장호(27) 봉사단원은 "더운 날씨에 힘들었지만 탄경 스님께서 항상 생각해오던 교육관 건립의 출발점을 함께하게 돼 보람된다"며 "스리랑카 아이들이 이곳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희망센터는 컴퓨터실과 한국어 교육실, 영어 교육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로, 향후 스리랑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

"용기 잃지 말고 희망으로 나아가길"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용기 잃지 말고 꼭 희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노숙인을 위한 '밥차' 스님으로 유명한 탄경 스님은 불교국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도 '베테랑'이다. 네팔과 라오스, 파키스탄, 캄보디아·스리랑카·태국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스님이 있었다.

특히 출가 전 대학생활을 보냈던 스리랑카는 스님에게 조금 더 특별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이들을 돕겠다는 서원도 굳건해졌다. 스리랑카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우리나라로 병원선을 보내준 곳이기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탄경 스님은 "불자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부터가 불교를 각인시키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나부터 솔선수범할 때 나눔 문화도 주변으로 조금씩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에서 모든 실무를 청년 봉사단원들에게 맡긴 것도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단원들이 몸소 체험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국불교의 미래를 청년 불자들이 짊어지고 가야한다는 사명감과 어려운 이들을 향한 자비심을 심어주고 싶었다. 스님은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실무를 맡겼는데 변수도 많았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해봤다는 자체가 뜻깊다"며 "한국불교가 지속되기 위해선 청년 포교가 꼭 필요하다. 그에 맡는 역할을 부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포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만 명이 배곯지 않고, 천만 명이 제대로 된 교육 받고, 천만 명의 환자가 병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그날까지 쉼 없이 나아가야죠. 꼭 해내겠다는 마음을 먹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일이 없지 않겠어요?"

김내영 기자

꽝 없는 선물에 스리랑카 아이들 '웃음꽃'

1월 6일, 전교생 320여 명 대상
치아건강 위한 칫솔·치약 세트도
학교 측에도 빔 프로젝트 전달식

스리랑카 아이들이 다나 청년봉사단이 준비한 '꽝 없는 뽑기 행사'에 참여해 선물을 하나씩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굣길에 올랐다.

다나 청년봉사단은 1월 6일 봉사활동 일정을 마무리하며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전교생 320여 명을 대상으로 '꽝 없는 뽑기 행사'를 개최했다.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좋은 추억을 얻어가길 바라는 따뜻한 배려였다. 학생들은 차례대로 투명 박스 안에 들어있는 종이를 뽑아 다양한 선물을 받고 웃음꽃을 피웠다.

선물은 학용품 세트, 도시락, 손목시계, 한국 과자 세트, 에코백, 캡모자, 텀블러, 가방, 비타민, 크리켓 배트, 줄넘기, 스케치북과 파스텔, 자전거 등으로 구성됐다. 물품은 사)다나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마련했고, 청년봉사단원들이 손수 포장했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해 치약·칫솔 세트가 전교생에게 하나씩 주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사)다나 대표 탄경 스님은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게 됐다"며 "다나 청년봉사단원들도 받는 기쁨보다 누군가에게 나눌 때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꼭 느꼈길 바란다"고 말했다.

1등 상인 자전거를 뽑은 둘샤니(14) 학생은 "자전거가 뽑힐 줄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며 "등굣길에 항상 아버지와 함께 다녔는데, 이젠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될 것 같아 설렌다"고 소감을 전했다.



학교 측에 빔 프로젝트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학교 측에 빔 프로젝트와 대형 스크린 전달식도 진행됐다. 사전에 학교 측에 학생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물품을 문의한 후 특별히 준비한 것이다. 강재선 사)다나 이사는 "다나가 재정적인 면에서 크게 넉넉하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선뜻 마음을 내주신 후원자 덕분에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준 후원자들께 항상 고맙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배움의 길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미니 가마지(Gamini gamage) 웰리파탄울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며칠간 다나 청년봉사단과 학교 학생들이 어울려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 기쁘다"며 "아이들을 위해 챙겨준 선물 감사하고, 빔 프로젝트와 스크린은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김내영 기자

홍수민 (사)다나 청년봉사단장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봉사 원동력"



"스리랑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해맑은 웃음이 봉사활동을 잘 끝마치게 된 원동력이 됐습니다. 도움을 주러 왔는데 오히려 과분한 사랑을 받고 가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홍수민(25) 사)다나 청년봉사단장은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의 실무를 담당했다. 홍 당장은 "단원들이 맡은 역할을 잘해주고 묵묵히 견뎌줘 사고 없이 봉사를 회향했다"며 "단원들에게 한국과 스리랑카 문화 교류라는 뜻깊은 추억을 만들어준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홍 단장은 향후 포부도 밝혔다.

"앞으로 다른 봉사자들이 주체적으로 봉사활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시행착오를 밑거름 삼아 더 발전된 다나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내영 기자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2018년 (15회)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산지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